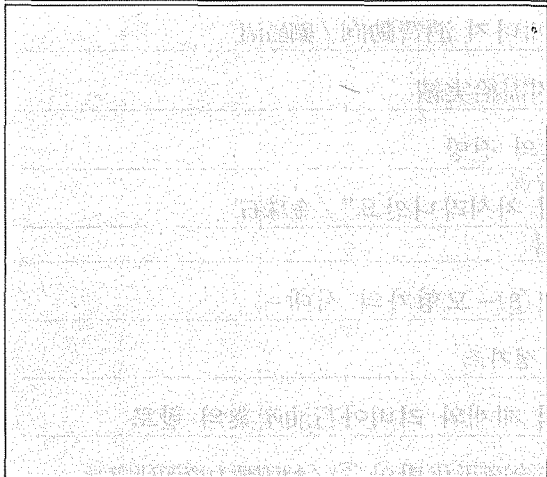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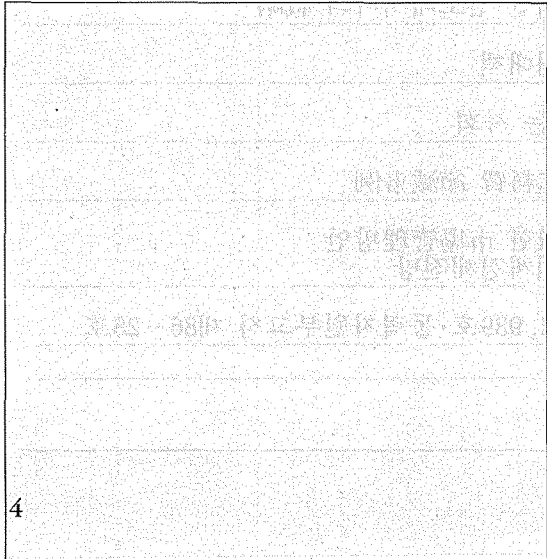


原油價格의 변천과정과 전망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I. 머리말

원유가격의 회복을 목표로 지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유고슬라비아의 브리오니섬에서 열린 제78차 OPEC (石油輸出國機構) 총회는 國別산유쿼터합의에 실패한 채 끝났다. 이로써 원유가격은 앞으로 계속 불안정한 궤도를 그려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OPEC 산유국들이 앞으로 계속 自國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절제한 경쟁을 벌일 것이며, 이에 따라 원유가격도 당분간 약세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유가격의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 보기로 한다.

II. 第1次 大戦前의 原油價格

1. 구매자가 결정한 原油價格

석유가격이 처음으로 공식 발표되고, 영업상의 거래상이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백여년전 美國에서였다. 1860년대의 美國에서는 사막과 같은 황무지에서 발견된「검은 기름」(原油)을 마차로 운반해서는 장사가 어렵게 되자 철도와 파이프라인을 부설, 대량수송을 추구하게 되었다. 잇따라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어도 소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검은 황금」을 진짜로 빛나는 황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송수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송수단을 보유한 철도회사와 파이프라인회사를 잇따라 매입한 것이 후에 石油王으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엑소, 모빌, 소칼등의 巨大석유회사의 창업자인 존·D·록펠러였다. 1878년이 되자 정유회사 경영자로부터 출발한 록펠러의 동의 없이는 단 1배럴의 원유도 철도에 흐르지 않게 되었다. 1895년이 되자 원유의 생산자에 대해 「이 정도의 가격이면 사겠다」는 스탠다드社の 독자적인 구입가격을 신문에 공표하기 시작했다. 그후 스탠다드社は 全파이프라인을 지배, 펜실바니아州 생산원유의 80%를 매입했다. 이와 같이 당시에는 구매자의 인위적인 의사로 가격수준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구매자가 공표한 가격이 原油가격 또는 公示가격(정부판매가격)의 기원이다. 이에 대해 매도자가 공시한 것은 제2차 대전후인 1950년 이후의 일이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859년은 세계석유산업에 있어

서 있을 수 없는 해이다. 그것은 美國의 드레이크가 오늘 날까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石油의 기계식 굴착방법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굴착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게 되어 드레이크가 파놓은 펜실바니아주 타이타스빌 油井 주변에는 당시 배럴당 20달러나 하는 「검은 황금」을 손에 넣으려는 사기꾼들이 여기 저기 구멍을 뚫었다.

2. 「검은 황금」과 정글의 법칙

원유는 지하에서는 수평으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에서 1개 유정으로 빨아 올려도 그 井戶 주변 지하에 고이게 된다. 그러나 기름이 고여있는 층이 어느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두께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서부개척이 진행되던 당시의 美國에서는 법률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지하원유의 소유권에 관한 판례도 없어 결국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 즉 야생동물을 잡는 자에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원유를 뽑아 올리는 자가 소유자라는 「포획의 원칙」(Law of capture) 또는 「정글의 법칙」이 인정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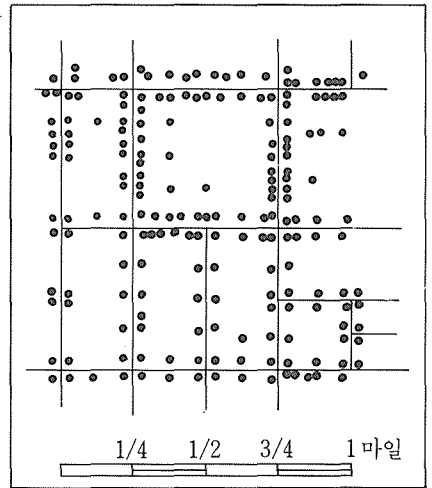
따라서 어느 곳에서 원유가 발견되면 그 부근의 토지를地主로부터 빌리거나 사서 사기꾼들이 굴착하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원유가 발견되면 옆의 鑛區보다 먼저 채굴하게 되었다.

만약 그 기름 전체를 덮는 넓은 토지를 한 사람이 독점할 경우, 원유수요에 맞추어 적당히 생산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유전의 소유자가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고 또 地上鑛區가 細分되어 있으면 한사람도 빨리 기름을 뽑아 올려 파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포획의 원칙」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생산이 수요를 앞질러 공급과잉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음 그림은 당시 지상에서의 구분과 소유지내에서 굴착된 油井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이미 생산중인 부근의 油井 근처에 새로 油井을 뚫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오일러시에 편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계속 분출, 지상에 流出된 원유의 가격은 공급과잉으로 폭락하게 되었다. 드레이크는 하루에 30배럴을 뽑아올려 이를 배럴당 30달러씩에 팔아 한달동안에 1만 8천달러의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이것도 잠

오클라호마州 카싱油田의 토지구획과 油井



시뿐이었고, 1860년에 원유가격은 거의 2달러 수준으로 폭락했다. 南北戰爭기간인 1861~1865년 당시에도 원유가격은 배럴당 10센트에서 14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드레이크가 실업자 신세가 되어 1880년에 죽었을 때 그의 수증에는 무일푼이었다. 당시의 어지러운 원유가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3. 록펠러와 오일트러스트

그 당시 石油의 용도는 거의 조명용으로서 그전까지 사용해 오던 고래기름과 石炭液化油를 代替했다. 따라서 석유시장도 소규모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원유에서 생산된 윤활유는 점차 식물성 윤활유를 代替하게 되고, 重油가 석탄에 대신하여 선박이나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정유업자들을 통합하여 철도와 파이프라인을 독점한 록펠러의 스탠다드 트러스트는 美國 全석유사업을 지배하는 한편 灯油의 수출시장인 유럽제국에도 영향력을 확대시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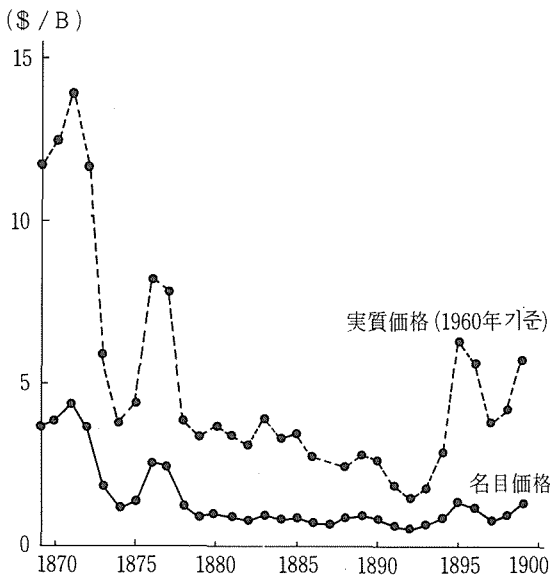
1880년 당시 英國, 프랑스, 獨逸에서는 셀오일이나 석탄으로 灯油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값이 비싸서 美國産 석유와 경쟁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1883년에 러시아의 바쿠油田에서 바츠미港까지 연결하는 바츠미철도가 완성됨으로써 러시아産 석유가 유럽시장에 대량으로 흘러들어와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스

탠다드와 러시아石油 사이에 치열한 油價경쟁이 전개되었다.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탠다드는 美國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그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한편 美國내에서는 1907년 텍사스州의 스피들롭이라는 언덕에서 거대유전이 발견되어 메론제벌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후 텍사스에서는 잇따라 새 油田이 발견되었는데 오늘날의 텍사스코도 이 가운데에서 발전한 기업이다. 즉 스탠다드의 美國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는 후발기업이 등장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美國의 大企業트러스트가 전성기를 이룰 때여서 중소기업이나 농민들에게 기업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1911년 5월 美國대심원은 「스탠다드의 트러스트 및 기업합병은 불공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서면법에 위반하여 거래와 생산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분할을 명령했다. 그결과 1970년의 창립 이후 41년간에 걸쳐 美國 석유산업에 군림하던 록펠러의 스탠다드社는 지역별로 30여개의 독립회사로 분할되었다. 스탠다드 오브 뉴저지(현재의 엑슨), 스탠다드 오브 뉴욕(현재의 모빌), 스탠다드 오브 캘리포니아(현재의 소칼) 등은 당시 분할될 때의 社名이다.

다음 그림은 1900년 이전의 美國의 원유가격을 나타낸 것으로서 1960년 OPEC가 결성될 당시의 달러貨로 환산하면 배럴당 4~5달러 수준이다.

美國 펜실바니아 原油의 가격추이



Ⅲ. 第1次 大戦後の 原油價格

1. 제 1차 대전과 石油의 戰略物資化

스탠다드가 분할되면서 휘발유자동차도 늘어나기 시작, 1915년의 휘발유소비량은 燈油를 상회하게 되었다. 美國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912년에 1백만대를 넘어서고, 휘발유소비량은 2천만배럴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주유소는 1913년 걸프가 피츠버그에 개설한 것이 그 효시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911년에 英國의 海軍相에 취임한 윈스턴 처칠은 고속전함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代替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산 석유로는 공급중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英國은 독자적인 국영회사를 설립하여 석유를 확보하기로 했다. 1914년 英國 정부는 앵글로 페트르石油(현재의 BP)에 51%의 출자를 결정했다.

이 해에 발발한 제 1차 세계대전은 石油의 전략물자로서의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규모 육군의 이동은 휘발유 자동차에 의해서, 오토바이나 전차, 비행기의 이동에 있어서도 石油의 유무가 戰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922년 프랑스의 포앙카레수상은 프랑스國策을 반영하는 석유회사의 필요성을 절감, 1923년 국영石油신탁회사(그 이듬해 CFP로 개칭)를 창립했다.

이와같이 열강은 石油을 자기주권하에 두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黑海 주변의 석유산업이 국유화되면서 괴멸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유럽에서 美國産 원유의 점유율이 다시 높아졌다. 당시 세계의 원유생산에서 美國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수준이었다. 그러나 美國내에서는 머지 않아 국내석유자원이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소리가 높아져 갔다. 美國의 석유수요는 1914년에 2억 1천만배럴이던 것이 1920년에는 4억 3천 5백만배럴로 늘어나 국내생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1921년, 후에 대통령이 된 후버商務장관은 스탠다드 뉴저지등 美國의 7대 석유회사에 대해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공동으로 석유개발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 供給과잉과 石油의 생산할당

이러한 과정에서 1922년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고, 1926년에는 오클라호마에서, 1930년에는 텍사스 東部에서 각각 대유전이 발견되었다. 여기서도 「정글의 법칙」은 여전히 작용하여 여기저기서 굴착함으로써 또 다시 美國의 석유공급은 과잉상태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 결과 원유가격은 다시 폭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30년초의 公示가격은 배럴당 1달러30센트까지 떨어졌고 1931년 7월에는 거의 24센트로 하락했고 실제거래가격은 5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석유회사들은 이와같은 공급과잉으로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原油라는 유한한 자원을 보존하고 원유가격의 안정을 이룰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석유생산자간에 자율적으로 생산할당을 결정하는 것은 反트러스트法에 위반되기 때문에 석유회사들은 정부에 건의하여 대통령은 내무성에 생산할당권한을 부여했다. 내무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등 產油諸州는 州지사의 명령으로 군대를 출동시켜 油井별로 강제폐쇄를 단행했다. 그 결과 원유가격의 폭락은 일단 수습되었다.

1982년 3월, 원유가격의 폭락과 분열의 위기에 직면한 OPEC가 2~3개월분의 國別산유 할당량을 결정하고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의 美國의 생산할당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石油의 국제화와 單一基準地點制

이와같이 美國의 원유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세계에 수출되어 국제석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오일러시로 온통 떠들썩한 美國은 방대한 양의 원유를 제품화하여 灯油나 휘발유를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특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州의 원유는 멕시코灣(Gulf of Mexico) 지역에서 정제되었다. 美國에서 수출되는 석유는 세계각지로 보급되었고, 세계의 석유가격은 美國의 걸프(멕시코灣)에서 수출되는 石油의 FOB(본선도조건) 가격에 운임을 포함한 CIF(보혐료·운임포함조건) 가격이 기준이 되었다.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세계각국은 美國 이외의 지역에서 산 석유에 대해서도 美國으로부터의 CIF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입했다. 이는 당시의 美國이 세계 최대의 석유수출국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가격은 걸프 플러스方式이라고 불리워졌다.

이와같은 세계적인 석유가격을 제도화하고 카르텔화한

것이 7대 메이저(국제석유자본)였다. 메이저는 美國 이외지역에서도 석유의 探鑛·생산에 나섰고,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정제·판매사업을 벌이는등 석유산업의 각부문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서게 되었다. 메이저들에게 있어서 걸프플러스方式의 가격관습은 원유와 석유제품가격의 폭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어크나카리協定(1928년)의 산물이었다.

이 가격결정방식은 一名 單一基準地點制(베이싱 포인트 프라이스)라고 불리워진다. 이것은 그 당시 막대한 수출능력을 갖고 있던 美國產 석유를 세계시장에 팔아넘기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큰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메이저의 강대한 지배력에 의해 강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 다년간 강행되었던 걸프플러스方式도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中東지역에서 값싼 원유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자 그 모순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IV. 第2次 大戦후의 原油價格

1. 2重基準地點制

제2차 대전중 英國의 해군함정들은 中近東해역과 인도양에서 활약하였는데 함정용 연료인 重油를 中東의 항구에서 구입하여도 美國 멕시코灣(걸프)에서의 운임이 가산된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英國해군은 中東產 원유가 염가였으므로 메이저와 협의하여 中東의 積出港도 「기준지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처음에는 이란의 아바단港, 나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港을 「기준지점」으로 정했다.

이때부터 세계원유가격은 멕시코灣의 單一基準地點制에서 2基準地點制로 바뀌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美國과 中東의 두 기준점의 FOB, 즉 공시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했다.

멕시코灣과 페르시아灣의 두 기준지점이 同一가격을 취할 때, 여기에 탱커운임을 보탠 원유가격, 즉 CIF가격이 同等가격이 되는 지점은 地中海의 말타섬 부근이 되었다. 이것을 等價地點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中東원유는 자원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생산코스트가 저렴하여 공시가격을 美國產 원유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점차 가격차가 생기게 되고, 가격인하 때마다 等價地點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카리브海, 그리고 최후에는 뉴욕港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그 무렵 그때까지 세계석유시장에 군림하던 美國원유의 지위는 퇴조하고, 그 대신 中東원유가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때까지 원유가격의 기준이던 美國원유는 세계에서 비싼 원유로 전락하고 그후 美國경제 전반이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음 표는 원유가격체계가 2基準地點制로 바뀐 이후 아라비아나이트 공시가격의 변동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41년의 가격인 배럴당 1.05달러는 멕시코灣의 공시가격과 等價이며, 1947년의 가격 배럴당 2.22달러는 美國원유의 대폭인상에 편승하여 유럽시장에서 中東원유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며 1949년의 배럴당 1.75달러는 美國도 中東원유를 수입하게 되자 美國경제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등가지점이 뉴욕이 되도록 中東원유의 공시가격을 13센트 인소한 것이다.

아라비아나이트原油 公示價格의 추이

	公示價格 (\$/B)	변 동 내 용
1939. 12	0.86	輸出開始基準値 설정
41. 5	1.05	美國到着價格等價베이스
	-	페르시아灣沿岸과 멕시코灣沿岸을 2基準地點으로 하는價格制설정
45. 6		
46. 12	1.20	美國產原油價 인상에 追從
47. 12	2.22	等價地點 런던으로 옮겨가다
48. 5	2.03	基準點 카브리해로 옮겨가다.
49. 4	1.88	供給事情 推移에 의한 價格조정
49. 7	1.75	等價地點 뉴욕으로 이동
1950. 11 *	1.05	
53. 5. 2	1.93	
57. 6. 7	2.08	Gulf, CFP, BP 등이 新規로 製品供給 개시
59. 2. 13	1.90	메이저油價 인하
60. 8. 9	1.80	메이저油價 인하

(註) 1960年 8月 9日 以後 1971年 2月 14日 까지 價格은 無變動
 * 1949年 이전 AP1 36* 基準 (美國聯邦去來委員會資料에 의거)
 1950年 이후 AP1 34* 基準

이와같이 걸프코스트 기준치의 중요성이 퇴색하고 美國이외지역에서 원유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메이저는 생산지역의 중요수출지역에서 각각 자기회사의 공시가격을 설정했다. 그 가격은 각수출지점에서 탱커 적정운임을 고려하여 인도가격이 다른 수출지점의 인도가격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50년대 이후 원유판매경쟁으로 실세가격이 공시가격을 밀리게 되었다.

이 당시 산유국에 대한 이권료의 산출은 각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세가격의 하락은 석유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메이저는 1959년 이후 계속 공시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유가인하 부담을 산유국 측에 전가시켰다. 이것은 산유국들을 자극시켜 1960년의 OPEC 창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2. 原油의 低價格時代(1960년대)

5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流体革命이 시작되면서 석유수요도 급격히 증가했고, 세계각지에서 석유개발이 추진되어 많은 大油田이 발견, 개발되었으며, 특히 中東지역에서 풍부한 석유자원이 계속 세계의 주요 공급源으로 등장했다.

한편 그때까지 메이저에 의해 독점되어 있던 中東지역에 美國의 독립계 석유회사, 이탈리아의 ENI, 일본의 아라비아石油등이 신규로 진출하자 시장은 치열한 판매경쟁의 무대가 되어 원유가격은 계속 하락했다.

물론 원유가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메이저나 독립계 석유회사에서 自社의 계열밖으로 팔때만 알려졌으며, 자기 계열社에 대한 원유가격은 移轉價格이라고 하여 유럽지역의 경우는 公示價格이었고, 일관조업회사의 이익은 상류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子會社에 대한 가격은 실세가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非계열회사와 印度의 정유공장에 대한 가격인하는 통례로 되어 있었다.

메이저는 1959년과 1960년 두차례에 걸쳐 실세가격에 접근시키기 위해 공시가격의 인하를 단행했다.

한편 1950년께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코간에는 利權 쟁탈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1955년부터 그 산출기준을 실세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서 공시가격의 인하는 사우디정부의 국고수입감소로 직결되었다. 이에 메이저의 일방적인 유가인하에 대항하기 위해 산유국들이 OPEC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그 압력에 의해 그후 10년간은 실세가격은 하락해도 공시가격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고정시키면 실세가격의 하락분은 產油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가 그 이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증산을 하여 가격하락분만큼

더 팔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판매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원유가격하락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과 시장구조에서 연유되었다.

우선, 석유의 최대소비국인 美國이 안보적 차원에서 석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59년부터 석유의 수입할당제를 실시하여 해외원유의 도입을 제한했다. 한편 유럽시장은 대부분의 정유공장들이 메이저계열의 子會社로서 원유가격은 일반거래와는 다른 이전가격이기 때문에 자유시장이 아니었다.

그 다음 최대석유시장이 日本이었으나, 당시 日本은 원유수입의 외화를 할당제로 하고 있었다. 각석유회사에 대한 외화할당기준은 실적에 두고, 실적의 절반은 前期의 외화할당금액,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前期의 원유도입물량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사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급적 값싼 원유만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中東원유가격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원유가격의 실패는 직접관계자 이외에는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또 공표된 표면상의 가격인하에 유전시기간의 長短, 또는 거래에 따른 자금의 低利用 자동 실질적인 가격인하도 있었다.

3. 原油의 高價格時代 (1970년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저렴하고 풍부한 石油에너지의 공급은 선진공업국에 에너지혁명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石油가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탄을 능가하여 主宗에너지로 등장했으며, 이것이 또한 선진국의 경제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되었으나, 그 반면 석유의존도의 증대는 70년대에 전개될 석유위기의 요인이 되었다.

1970년 9월 리비아의 혁명정부가 국내에서 조업중인 외국석유회사에 대해 공시가격의 대폭인상을 요구, 이를 관철시켰다. 이와같은 리비아의 성공은 原油高價格시대의 서막이 되었다.

油價인상의 추이를 보면,

●1970년 9월 리비아혁명정부는 美國系 옥시덴탈社에 강요하여 리비아원유의 공시가격을 배럴당 30센트 인상시켰다. 그때까지 리비아원유가격은 中東원유의 공시가격에 페르시아灣에서 수에즈운하 경유의 탱커운임을 합한 수준이었는데, 제 3차 中東전쟁으로 수에즈운하가 폐쇄되는 바람에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유가

인상의 객관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리비아의 油價인상에 이어 1970년 11월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등 3개국이 그때까지 대폭 인하했던 重質원유가격을 배럴당 9센트 인상했다.

●1970년 12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21차 OPEC 총회에서 메이저와 원유가격의 인상교섭을 하기로 결의하고 그 전술로서 종전의 각국별 對메이저 절충방식 대신에 지역별 집단교섭방식을 택하기로 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페르시아灣 6개국은 테헤란에서 메이저와 교섭, 메이저의 고집을 꺾고, 그 이듬해인 1971년 2월 14일 테헤란협정을 체결하여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배럴당 35센트 인상하고, 다시 71년 6월 1일부터 5센트, 73년부터 75년까지 매년 5센트씩 인상기로 결정했다.

●1971년 3월 페르시아灣 산유국의 유가인상에 자극 받은 리비아는 다시 테헤란협정의 배럴당 35센트에 65센트의 웃돈을 얹어 팔기로 결정했다. 이 트리폴리협정을 지켜본 다른 산유국들도 즉시 그 수준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협정에서 리비아원유가 低유황의 장점이 있다고 하여 배럴당 10센트 가산한 것은 그후 아부다비 원유등의 가격설정에도 크게 작용했다.

●1972년과 1973년에 원유가격에 대한 달러貨 평가절하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9개국 통화의 단순평균이 2%(73년에 1%) 변동할 경우 그 액수만큼 공시가격을 조정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페르시아灣 산유국의 공시가격을 배럴당 17.5센트 내지 20.3센트씩 인상했다. 이것이 제네바협정과 新제네바 협정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1973년 10월에 폐지되었다.

1973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쿠웨이트, 카타르등 4개국은 메이저와 사업참가에 관한 리야드협정을 체결하고 우선 1973년에 25% 참가하고, 그후 1982년까지 51%의 참가를 실현시키기로 결정했다.

1973년부터 이 사업참가가 시작되면서 참가비율에 따른 산유국정부의 原油지분 대부분은 산유회사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Buy back crude로 되어 있었다. 물론 되사는 원유는 메이저의 손을 거쳐 판매되었고, 나머지 참가원유는 각국정부에서 판매했는데 이를 D-D원유(Direct deal crude)라고 불렀다. 이 D-D원유는 때마침 원유의 공급에 큰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산유국과의 유대강화의 好機로 판단, 알다투어 구입하는 바람에 D-D원유는 터무니없이 값이 치솟아 이것이 일반원유가격의

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다.

V. 第4次 中東戰爭과 油價폭등시대

1. 제 4 차 中東戰爭과 제 1 차 석유위기

1973년 9월의 제35차 OPEC 총회후 산유국은 메이저와 원유 공시가격의 100% 인상요섭에 들어갔다. 물론 메이저는 산유국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답판은 결렬되었다.

이 무렵 약화일로를 달리던 팔레스타인 분쟁이 드디어 절정에 이르면서 10월 6일 제 4 차 中東戰爭이 발발했다. 페르시아灣 6 개국은 10월 16일 쿠웨이트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70% 인상키로 결의했다. 이것을 「쿠웨이트宣言」이라고 하며, 아라비아나이트의 가격은 배럴당 3.01 달러에서 5.12 달러로 뛰어 올랐다.

이 선언의 중요한 점은 가격의 대폭 인상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메이저와 협의하여 결정하던 공시가격을 OPEC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이다. 이 선언을 통해 세계의 석유를 지배하는 것은 메이저가 아니라, OPEC 라는 사실을 천명했다. 그 결과 석유산업은 史上 空前의 대변혁을 맞게 되어 이것을 러시아혁명에 비유해서 「10月革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 4 차 中東전쟁이 발발하자 美國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프라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즉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원조를 강화했다. 이에 격분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아랍산유국들은 10월 17일 마침 쿠웨이트에서 열리고 있던 아랍石油相회의에서 ① 10월 이후 산유량을 매달 5%씩 감축하고, ② 이스라엘지국에 대한 石油禁輸를 결의했다. 3일후인 10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는 美國과 네덜

아라비안라이트 原油價格의 추이(1971年 이후)

	公 示 價 格		備 考
	\$ / B	指 數	
1971. 2. 15이전	1.800	100.0	
2. 15	2.180	121.1	테헤란協定の 체결
6. 1	2.285	126.9	테헤란協定の 적용
1972. 1. 20	2.479	137.7	제네바協定の 체결
1973. 1. 1	2.591	143.9	테헤란協定の 적용
4. 1	2.742	162.3	제네바協定の 적용
6. 1	2.898	161.0	新제네바協定の 체결
7. 1	2.955	164.2	新제네바協定の 적용
8. 1	3.066	170.4	新제네바協定の 적용
10. 1	3.011	167.3	新제네바協定の 적용
10. 16	5.119	284.4	OPEC 一方油價인상
11. 1	5.176	287.6	新제네바協定の 적용
12. 1	5.036	279.8	新제네바協定の 적용
1974. 1. 1	11.651	647.3	OPEC 一方油價인상(市場價格: 10.952)
11. 1	11.251	625.1	公示價格인하(市場價格: 10.465)
1975. 10. 1	12.376	687.6	$10.463 \times 1.10 \div 0.93$ (市場價格: 11.510)
1977. 1. 1	* 13.000	722.2	$11.510 \times 1.05 \div 0.93$ (市場價格: 1.2090)
1. 1	** 13.656	758.7	$(11.510 + 1.190) \div 0.93$ (市場價格: 12.700)
7. 1	13.656	758.7	$(11.510 + 1.190) \div 0.93$ (市場價格: 12,700)
1979. 1. 1	14.343	796.8	$13.339 \div 0.93$ (市場價格: 13.339)
4. 1	15.611	867.2	$14.546 \div 0.93$ (市場價格: 14.546)

(註) (1) 1975年 이후에 대해서는 當該市場價格에서 93% 換算에 의해 算出

(2) *표는 사우디와 U.A.E에 적용

(3) **표는 前記 2 個國을 除外한 OPEC 11 個國에 적용

란드에 대한 석유禁輸를 단행했다.

아랍제국의 反유태사상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배양된 민족적 신념이라고 할만큼 뿌리깊은 것으로서 당시 OPEC 사무국장이었던 파치야치박사는 일찍부터 對이스라엘 전략의 무기로써 석유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OPEC의 결속은 바야흐로 철벽과 一大巨岩과 같이 석유소비국 앞에 다가 서면서 소비자들은 石油의 엄청난 위력 앞에 망연자실,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져들어 이른 바 제 1차 석유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석유업자들은 D-D 원유와 스파트원유로 몰려들어 로테르담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24달러 원유까지 출현했다. 또 페르시아灣岸 6개국은 同年 12월 23일 다시 공시가격을 2.12배 인상, 기준원유인 아라비안라이트의 가격을 배럴당 5.12달러에서 11.65달러로 올리고, 또 다른 원유도 잇따라 인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OPEC의 현안과제이던 품질문제, 즉 비중과 유허분 및 탱커운임 차이등에 대해서도 기준원유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규정했다. 그 결과 아라비안라이트의 공시가격은 1974년 1월 1일 현재 1년전에 비해 4.5배, 불과 3개월전인 1973년 10월 1일에 비해 3.9배나 올라 바야흐로 태풍같은 油價의 폭등시대가 시작됐다.

2. 제 2차 석유위기와 油價폭등시대

이와같은 대폭적인 油價인상은 세계경제를 위축시켜 경기는 침체되고 석유수요도 감퇴되었다. 자유세계의 석유수요는 1973년의 4천 7백 85만 B/D에서 1974년에는 4천 6백 25만 B/D로 감소하면서 다소 공급과잉의 기미를 나타냈다. 또 1974년 중반에 北海유전의 유망성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74년 11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페르시아灣岸 산유국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부다비 등 3개국은 공시가격을 배럴당 40센트 인하했는데, 이는 지난 1960년에 메이저가 일방적으로 인하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어 同年 12월 빈에서 열린 제42차 OPEC 총회는 아부다비총회의 가격체계를 답습하여 1975년 9월까지 원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1975년 9월 제45차 OPEC 총회는 종전의 공시가격방식을 폐지하고 공식판매가격 또는 정부판매가격방식으로

바꾸고, 판매가격을 배럴당 10.46달러에서 10% 인상하여 11.5달러로 올렸다. 그리고 판매가격은 공시가격의 93%에 상당한 금액으로 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종래의 공시가격에 93%를 곱한 것을 D-D 원유 가격으로 정했다.

이것은 그때까지 원유가격이 인상되면 메이저가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산유국의 지분증대와 함께 메이저의 이익도 증가하여 원유가격인상은 OPEC와 메이저의 공동투쟁이라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OPEC는 메이저의 이익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가격체제를 폐지하고 새 방식을 택하여 메이저의 이익을 기준 원유에서 20센트로 고정시켰다.

1976년 12월 도하에서 열린 제48차 OPEC 총회에서 참가 13개국의 의견은 양분되어 종전과 같이 통일된 단일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二重價格이 나타나게 되었다. 유가의 대폭인상을 주장하는 이란, 쿠웨이트 등 11개국은 아라비안라이트의 가격을 1977년 1월부터 10% 인상, 배럴당 12.70달러로 하고, 다시 7월부터 5% 가산할 것을 결의했으나, 이 결정을 보이코트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5%의 油價인상을 결정하였다.

그후 원유가격 인상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에 동조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온건파와 리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강경파의 두 흐름이 생겨 油價인상방식이 무질서해지면서 석유시황은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二重價格은 1977년 7월 제49차 OPEC 총회에서 강경파가 7월부터 예정하고 있던 5%의 油價추가인상을 취소하고 온건파가 5%의 인상을 단행하여 일단 원유가격은 단일화되었으나, 양측의 기본적인 방침까지 일치를 본 것은 아니었다.

1978년 12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52차 OPEC 총회에서 1979년 1월부터 원유가격을 매분기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아라비안라이트의 경우 인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78. 12. 31 = 12.70 \$ / B
- 1979. 1. 1 = 13.34 \$ / B
- 1979. 4. 1 = 13.84 \$ / B
- 1979. 7. 1 = 14.16 \$ / B
- 1979. 10. 1 = 14.54 \$ / B

매분기마다 가격을 조정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여하간 1979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그런데 1978년 가을에 발생한 이란의 회교혁명(호메이니즘)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2월27일부터 이란의 석유수출이 전면 중단되었다. 1979년 1월 팔레비國王이 국외로 망명하고 호메이니翁을 중심으로 한 회교혁명정권이 탄생했으나, 정국의 혼란으로 석유생산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혁명전까지 산유량이 6백만B/D(자유세계의 10%)로 그중 5백만B/D를 수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버금가는 OPEC 제2위의 석유수출국이던 이란의 산유량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세계석유시장은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에 필적하는 혼란에 빠져 이른바 제2차 석유위기를 맞게 되었다.

원유공급이 타이트해지자 소비국들은 재빨리 원유의 買占에 혈안이 되고, 스파트가격은 급상승하여 배럴당 40달러 원유까지 출현했다. 이런 상황은 이란이 새 정권하에서 2백만B/D의 생산을 재개한 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이 사태를 우려한 사우디아라비아는 1백만B/D의 긴급증산에 들어갔으나, 가격의 급등을 막지는 못했다. 산유국들은 스파트시장의 시황을 배경으로 1월 이후 계속 할증금인상을 단행하여 아부다비총회의 4단계 油價 인상안은 백지화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산유국들은 3월 26일 제네바에서 제53차 OPEC 총회를 열고, 4월 1일 이후의 원유가격을 아부다비총회에서 결정하여 10월 1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14.5%의 인상률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이 회원국 전체의 완전한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으로 회원국들이 각기 독자적인 할증금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상의 변동가격제로 바뀌어 원유가격의 단일화에는 실패했다. 물론 이와같은 가격은 각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이를 추인하는 형식이 되었다.

이와같이 각국이 할증료인상을 계속함으로써 5월 중순에 이르러 사우디외의 페르시아灣岸 각국의 油價는 배럴당 17~18달러 수준이 되어 아라비안라이트의 14.55달러와 큰 가격차를 보이게 되어 아라비안라이트의 기준원유로서의 위치는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와같은 산유국의 강경한 자세는 스파트시장의 油價상승을 반영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뫼니뫼니해도 이란의 산유량축소분 4백만B/D에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등의 증산분 2백만B/D를 뺀 나머지 2백만B/D의 부족이 요인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같은 高油價가 선행지표가 되어 산유국의 할증료는 더욱 치솟아 6월 1일 이란은 「판매자측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통고하고, 최고의 할증료로 리비아와 같은 수준인 배럴당 5.31달러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인도네시아도 5월15일자로 소급하여 1.95~3달러의 할증료를 요구했다.

6월26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OPEC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① 아라비안라이트 판매가격을 배럴당 18달러로 인상한다.

② 유종간 가격차이에 시황에 따라 배럴당 2달러의 한도내에서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다.

③ 프리미엄등 원유가격이 배럴당 23.5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상한선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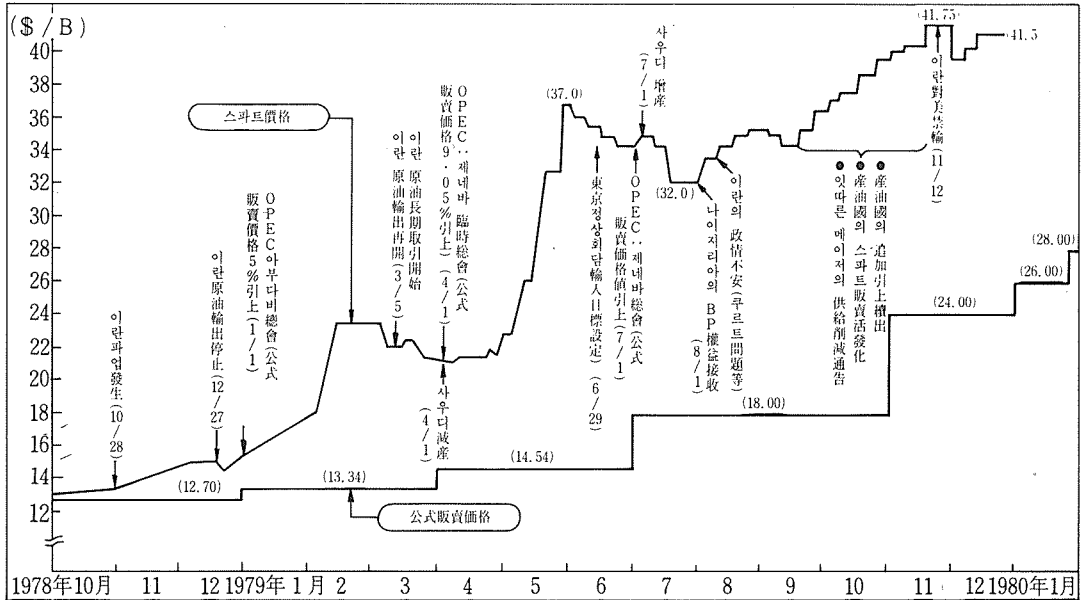
이와같이 대폭인상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온건파간에 표면적인 타협은 성립되었으나, 그후 강경파는 일체히 상한선까지 가격을 인상하고, 그중에는 이 상한선을 넘는 나라까지도 있어 원유가격은 무질서한 多元高價시대를 맞게 되었다.

1979년 12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55차 OPEC 총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등 양국이 기준원유가격을 사전에 배럴당 18~24달러로 끌어올려 회의에서의 가격단일화를 시도했으나, 강경파인 리비아가 총회전에 油價를 30달러로 인상하고, 또 이란도 28.5달러로 인상하는 바람에 결국 회의는 가격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의장으로서 시중 온건한 유가인상에 의한 통일가격의 질서를 되찾으려고 했던 오타이바 아랍에미리트石油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가격은 방임상태가 되어 철벽같은 OPEC의 결속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1980년 1월 1일 리비아는 원유가격을 배럴당 34.72달러로 인상했고, 이어 1월 하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배럴당 26달러로 인상했고, 또 이란은 31달러로 올리는등 각국의 유가인상이 잇따랐다. 이와같은 인상러시는 量的으로는 전체원유의 5% 내외라고 하지만 보다 비싼 스파트원유를 가산하면 원유가격은 「30달러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후에도 油價상승세는 계속되어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배럴당 28달러로 인상하자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 유가를 올렸다.

아라비아나이트의 가격추이



〈資料〉 Petroleum International Weekly

VI. 原油價格의 하락과 低油價時代

1. 公式價格의 붕괴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원유가격은 상승세만을 보여 왔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석유수요의 감퇴, 그리고 소비절약의 진전에 따라 지난 1982년부터 하락세로 反轉하였다.

OPEC의 기준원유인 아라비아나이트의 공식가격은 배럴당 34달러에서 1983년 3월에 29달러로 인하되었고, 1985년 1월 다시 28달러로 떨어졌다.

1985년 12월 제76차 OPEC 총회에서 「시장점유율의 방위」를 선언한 이후 국제원유가격은 대폭락세를 보였다. 최근 기준원유의 하나로 등장한 WTI (美國西部텍사스産 中質油)는 1985년 11월의 배럴당 31달러에서 최근에는 10달러선으로 하락했다. 그후 국제석유가격은 다소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바야흐로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80년대에 들어 석유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제품시황의 변동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들은 수급과 가격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北

海産 브렌트원유는 대소비자인 북서유럽에 가까와서 수입하여 정제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짧다. 게다가 英國의 가격변동에 탄력적이어서 현물시장에서의 수요는 늘어났다. 그리하여 점차 리스크헷지와 투기를 위해 때로는 현물의 授受를 수반하지 않고 단기간에 수급개사의 손을 거쳐 거래되는, 先物市場이 발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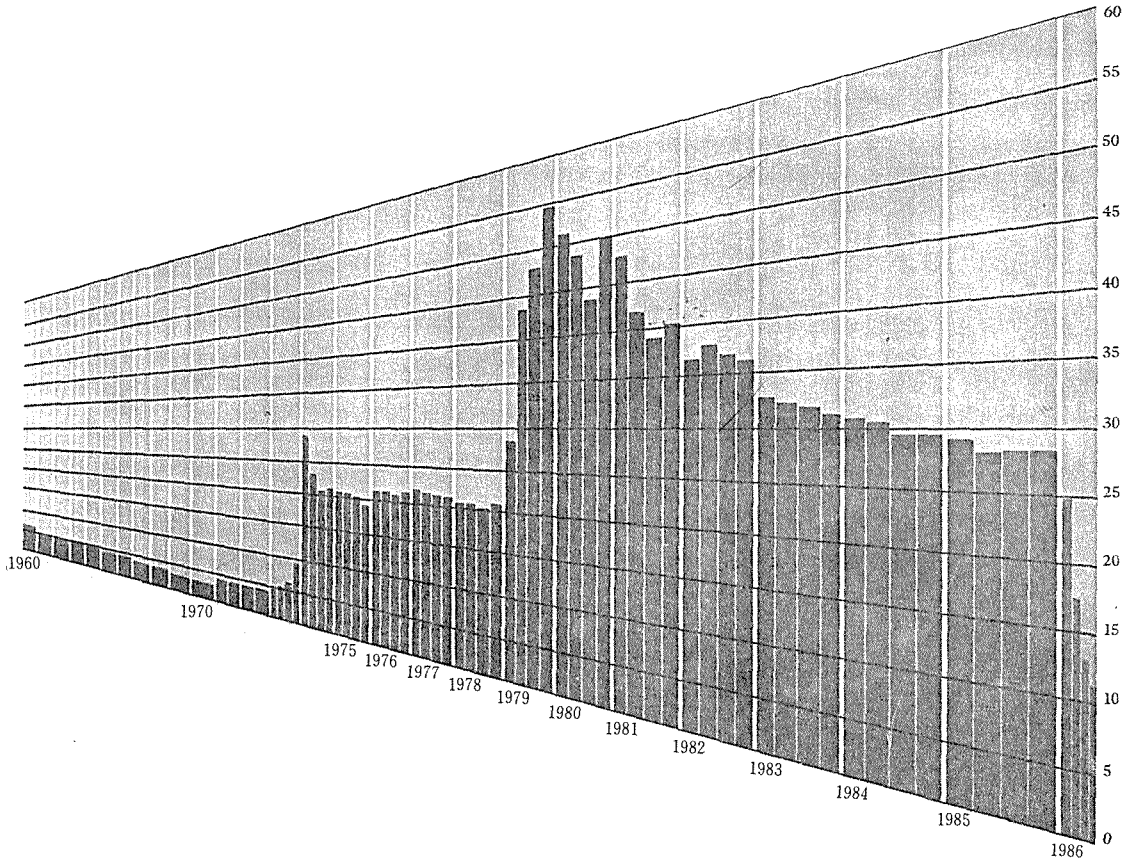
그런데 작년말부터 시작된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거래과정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1985년 8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네트백방식에 의한 원유판매를 시작했다. 네트백방식이란 석유제품의 스파트시황을 기준으로 정유회사에 정제비와 마진을 보증하고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2. 네트백方式 판매가격

최근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네트백방식의 등장이다. 네트백방식이란 원유가격을 제품시장 가격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것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네트백방식이 원유거래에 도입되면서 OPEC의 공식가격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아라비아안라이트 現物 가격추이



최근에 네트백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산유국과 지분생산업자간의 거래, 석유회사들간의 원유거래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나이지리아도 지분생산업자와의 거래에 이 방식을 도입했다. 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네트백방식을 변형시켜 지분원유가격 책정에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네트백조건으로 지분원유를 받는 석유회사들은 그 원유를 다시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재판매하여 마진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회사들의 판매형태가 현물시장에 네트백개념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3. 최근의 原油價格동향

최근 국제원유가격은 北海産 브렌트유가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가 하면 쿠웨이트産 원유가 현물시장

에서 한때 5달러선까지 급락했다.

석유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대로 올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여오던 원유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엄청난 매장량을 배경으로 물량공세를 계속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확인매장량 가운데 각각 25%와 13%를 차지하는 이들 두나라는 생산비도 가장 저렴하다. 따라서 극단적인 덤핑공세를 통해 경제성이 낮은 非OPEC 유전을 폐쇄토록 강요, 공급량을 줄이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시장 지배권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다.

OPEC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원유시장의 70%를 장악, 가격결정자로서 막강한 힘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두차례의 석유위기에 따른 高油價는 非OPEC 산유국들의 유전개발 의욕을 부추겼으며, 그 결과 공급과잉현

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심 2백m에서 퍼올리는 北海유전을 비롯, 멕시코, 이집트등으로 대표되는 非OPEC의 산유량증대는 결국 4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를 끌어 내리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OPEC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자 이들 회원국들은 지난해 9월 감산정책을 포기하고 油價전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主대상은 英國과 노르웨이의 北海유전으로서 OPEC의 생산은 非OPEC가 유가를 안정 또는 상승시키는데 같이 협력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OPEC가 회원국간의 감산배정을 둘러싼 異見으로 카르텔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英國, 노르웨이는 OPEC의 제의를 외면했다.

이러한 OPEC와 非OPEC의 대립, 또 배럴당 28달러 선까지의 회복을 주장하는 이란, 알제리, 리비아등 강경파와 사우디, 쿠웨이트등 온건파의 대립으로 인해 油價하락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루 1천6백만배럴로 묶여진 OPEC 산유쿼터는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지난달 유고슬라비아의 브리오니 섬에서 열린 OPEC 총회에서 감산합의에 실패하자 산유

량은 1천9백만~1천9백50만배럴로 오히려 늘어나 油價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앞으로의 油價추이에 관해서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측과 반등세로 돌아설 시점에 왔다는 두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곧 북반구의 겨울철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OPEC 원유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회원국간의 감산합의가 어려워 油價가 10달러선을 크게 넘어설 전망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반등하리라는 쪽은 사우디와 쿠웨이트라 할지라도 생산최저비용으로 알려지고 있는 10달러 이하 수준이 계속되면 재정타격이 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5달러선까지 하락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고, 다시 가격지지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이와같은 低油價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VII. 맺는말

제78차 OPEC 총회가 국별산유량감축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당분간 원유가격은 약세 내지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PEC의 시장점유율 확대정책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지난해말부터 폭락하기 시작한 원유가격은 산유국간의 담합에 의한 공급감축이 실현되지 않는 한, 현재의 低수준에서 크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유종의 先·現物가격은 현재의 10달러 수준에서 연말까지는 16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이같은 低유가 수준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확실성이 높은 石油의 新時代에 있어서 오직 확실한 것은 종래의 석유에 고유한 요소만으로는 석유문제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원유가격의 예측은 종전의 OPEC를 중심으로 한 수급관계 외에 가격형성메커니즘과 先物시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

국제原油가격추이 및 전망

(單位: \$/B)

	1984	1985	1986	1987
OECD ¹⁾	28.00	26.40	17.50	15.00
WEFA ²⁾	29.09	28.09	15.53	15.86
DRI ³⁾	28.87	27.04	16.68	15.80
NRI ⁴⁾	28.10	27.20	19.10	

(資料)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1986.

WEFA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86.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June 1986.

NRI, Quaterly Economic Review, May 1986.

(註) 1) OECD 중 6대국의 加重平均原價 輸入價(F.O.B.)임.

2) OPEC 국별 산유량에 의해 加重平均된 가격(F.O.B.)임.

3) 美國 정유업자의 海外原油 취득가격임.

4) NRI 추정 OPEC 平均價임.

企業人은 좋은 製品,

소비자는 바른 消費